

청소년 우울증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아동·청소년 패널데이터 이용

최영진·강홍익·김동욱·성규환·한휘중[†]
을지대학교 의료경영학과

Investigation on Factors Affecting Adolescent Depression: Using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Young Jin Choi·Hong Ik Gang·Dong Wook Kim·Gyu Hwan Seong·Whiejong M Han[†]
Department of Healthcare Management, Eulji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association between adolescent depression and personal factors such as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Methods: The data used for this study was taken from the 2014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Of those 2,351 subjects in a data set, data of 1,938 subjects were analyzed after excluding 413 subjects with missing information.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for multi-variate analysis. In addition, controlling effects of ego-resiliency was analyzed. SPSS 22.0. was utilized for statistical analyses.

Results: The study found that the depressive index was higher in women than men, and lower in adolescent who has a good relationship with parents and friends. This study also found that adolescents with high ego-resiliency are more vulnerable to depression.

Conclusions: It is recommended to understand and to utilize ego-resiliency of adolescents, in order to reduce adolescents depression. Promoting good relationship with parents and friends will also positively impact to lower adolescents depression.

Key Words: Adolescent, Depression, ego-Resiliency, Panel survey

접수일 : 2017년 11월 14일, 수정일 : 2017년 12월 7일, 채택일 : 2017년 12월 29일

교신저자 : 한휘중(13135,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553)

Tel: 031-740-7140 Fax: 031-740-7172 E-mail: hanwj@eulji.ac.kr

I. 서론

청소년기에는 급격한 신체적, 대인적, 인지적, 정서적 발달과 함께 내적, 외적 갈등으로 불안한 심리상태를 경험하게 된다(Calvete 등, 2005). 심리적 불안정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우울과 불안 등의 정서적 문제를 야기한다. 하지만 청소년은 정서적 문제를 다루는 역량이 부족하여 충동적, 공격적인 행동을 표출하기도 한다(Glaser, 1967; Rathi & Rastogi, 2007).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의 우울증 진료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서울시 소아청소년 광역정신보건센터와 학교보건진흥원이 서울시내 39개교 중·고교생 1만30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9년 우울증학생 선별 및 관리사업’에서 2,180명(16.7%)이 초기 우울증상을 드러냈고, 우울증이 심하게 병원치료를 권고 받은 청소년도 456명(3.5%)에 달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9). 또한 2주 내내 일상생활에서 지장이 있을 정도의 우울증을 청소년의 40% 정도가 여전히 경험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 정신건강이 위험수위에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Choi & Shin, 2016; Jo, 2009)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우울 등의 내재된 정신건강 문제는 자학적 행동, 비행, 공격적 행동으로 표출되기도 하며, 우울증을 경험하는 청소년의 20~30%가 문제행동을 하거나 성인 이후에도 낮은 건강수준, 작업능력의 감소, 의료 이용률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inistry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6; Choi & Lee, 2014).

청소년 상담 중 대인관계가 22.4%로 3년간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청소년기에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3). 청소년기에 대인관계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요인으로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긍정적이고 적극적

인 생활이 가능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우울 및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Jung, 2015). 즉, 청소년기의 건강한 대인관계는 가치관과 자아 형성 뿐만 아니라 성년기에 대인관계 유지를 위한 기법과 태도로 발전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고립감과 공허감 등의 심리적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Choi & Lee, 2014). 대인관계는 부모애착, 부모양육태도, 부모-자녀 의사소통 유형뿐만 아니라 부부간 갈등 등과 같은 가족 요인과 또래 및 친구관계로 표현되는 교우관계로 구분할 수 있다(Hong & Han, 2015; Yun & Gang, 2015).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는 가장 기본적인 대인관계로 청소년기 자녀의 정서발달과 사회성 등에 영향을 준다. 안정적 부모관계는 자녀의 정서 및 사회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관계가 안정적이지 못하면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특히, 부모의 애정은 자녀에게 언어적·비언어적으로 친밀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는 자녀의 사회적 연대, 인지된 억제력, 자기통제력을 높이고 긴장이나 범 죄적 접촉이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Ki, 2001).

현대 사회에서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일반화된 것으로 본다. 청소년의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당연한 결과이다. 하지만 과도한 학업부담은 스트레스를 넘어 우울증 및 대인관계 능력 저하와 비행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Park & Jung). 청소년기에 높은 학업성취 욕구는 삶의 질을 저하시키며, 학업만족도는 우울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cGee 등, 1986).

개인의 긴장·인내의 수준과 충동·통제의 수준을 상황에 따라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키는 조절 능력인 자아탄력성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자아탄력성은 불안, 우울을 줄이고 비행, 과잉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일 가능성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대인관계 요인이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Kim,

2012)와 함께 자아탄력성이 부모관계와 청소년의 공격 행동, 걱정, 불안 모형에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ark, 2013). 이와 같이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 및 통제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었고, 어려운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과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청소년기의 게임 중독 등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학업만족도와 부모 및 교우관계 등의 관계 중심의 단편적 연구를 청소년의 충동적 행동 억제요인으로 알려진 자아탄력성으로 인한 조절효과를 포함하여 다각적인 관점에서 청소년의 우울증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고등학교의 왕따 등으로 인한 피해를 포함하여 청소년의 우울증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울상태를 정확히 진단하여 예방하거나 조기 개입을 통해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도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특성 이외에 대인관계 등을 사용하여 우울증 영향요인을 아동·청소년패널 데이터로 연구하였다.

II. 연구방법

1. 분석 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중에서 중1 패널 데이터 가운데 4차 자료인 고등학교 1학년생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0(KCYPS)은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패널집단으로 선정하고, 층화다단계집락표집 과정을 통해 표본 집단을 추

출한 것으로, 78개 중학교를 표본 집단으로 선정하고, 각 학교별 한개 학급의 청소년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데이터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351명을 표본으로 하였으며, 이 중에서 응답의 결측치 문항을 제외한 1,938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우울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아동·청소년패널조사 자료 중에서 부모, 교우 등과의 대인관계요인과 개인의 건강, 학업만족도, 스마트폰 사용, 우울지수 등을 사용하였다.

1) 우울지수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인 ‘우울지수’는 김광일, 김재환과 원호택이 개발한 간이정신진단검사의 우울척도를 수정·보완한 질문지로(Kim & Kim, 1984) 아동청소년 패널 데이터에서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10개의 척도에는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싫어한다’, ‘기운이 별로 없다’,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 ‘걱정이 많다’, ‘울기를 잘한다’,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나 때문이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외롭다’,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장래가 희망적이지 않은 것 같다’, ‘모든 일이 힘들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Cronbach's α 값은 0.89였다(Lee & Chae, 2014).

2) 관계 요인

관계요인은 부모관계, 교우관계로 구분하였으며, 교우관계에서는 교우와 노는 시간을 포함하였다. 부모 관계지수는 학생이 느끼는 부모의 긍정적 관심인 애정과 관련한 ‘의견 존중’, ‘좋아한다는 표현’ ‘힘들 때 용기’, ‘칭찬’ 등 4개 문항을 4점 리

커트식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Cronbach's α 는 0.806이다. 교우관계는 '친구와 잘 어울림', '다툼 후 먼저 사과', '짜이 준비물 빌려줌', '친구가 의견을 잘 따름' 등의 4개 문항을 4점 리커트식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Cronbach's α 는 0.696이다. 그리고 노는 시간은 1주 동안 평균적으로 친구와 노는 시간을 연속형 변수로 코딩하였다.

3) 개인 특성

주관적 건강상태는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자가평가로 '매우 건강한 편이다'는 4점, '건강한 편이다'는 3점,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는 2점, '매우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는 1점으로 점수화하였다. 학업 만족도는 자신의 실제 학업성적에 관계없이 본인이 만족하느냐는 문항에 4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그리고 스마트폰 의존도로 '점점 많은 시간 휴대폰 사용',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불안',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 '시간 가는 줄 모름', '휴대폰 없으면 심심', '휴대폰 없으면 고립된 느낌', '불편' 등의 항목을 4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Cronbach's α 는 0.883으로 나타났다.

4)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은 Block과 Kreman(1996)이 개발한 척도를 변안한 14개의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놀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괜찮아짐', '새로운 일 시도', '좋은 인상을 줌', '에너지 넘치는 사람', '의지

가 강한 사람' 등의 문항을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Cronbach's α 는 0.827로 파악되었으며, 다 측정항목의 변수의 Cronbach's α 값이 모두 0.6 이상으로 신뢰도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3. 통계분석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분포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수행하였으며, 고등학생의 우울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위계적 다중선형회귀 분석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아탄력성에 의한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22.0을 사용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양측 5%로 설정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 특성

연구 표본은 1,938명으로 인구사회학적 분석에 의하면, '남자'가 974명(50.3%), '여자'가 964명(49.7%)이었다. 종속변수인 우울증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M=1.89(1.89\pm 0.56)$ 로 나타났다. 부모관계는 $M=2.99(2.99\pm 0.55)$ 로 나타났다. 교우관계 점수는 $M=3.11(3.11\pm 0.38)$ 으로 나타났다. 노는시간은 $M=2.73(2.73\pm 2.93)$ 으로 나타났으며, 휴대폰 의존도는 $M=2.38(2.38\pm 0.67)$ 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Items	N(%)	Mean±SD
Sex	Men	974(50.3)	
	Women	964(49.7)	
Relationship	Relation of Parents		2.99±0.55
	Friendship		3.11±0.38
	Time with friends		2.73±2.93

	Items	N(%)	Mean±SD
Personal	Usage Smartphone		2.38±0.67
	School record		2.74±0.74
	Health condition		2.99±0.53
Depression			1.89±0.56
ego-resiliency			2.19±0.39

2. 우울지수 영향 요인

우울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위계적 다중선형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분산팽창인자는 1.04~1.19으로 기준치 10 이하였고, 공차한계 역시 각 변수에서 0.86~0.99로 기준치 0.1이상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먼저 성별과 관계요인에 포함된 부모관계, 교우관계, 교우와 노는 시간을 독립변수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모형이 0.001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였고 독립변수 중에서 교우와 노는 시간을 제외한 모든 변수가 유의수준 0.001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우울지수가 높았으며, 부모 및 교우관계가 좋을수록 우울지수가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스마트폰 사용, 학업 및 건강만족도를 추가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회귀모형이 0.001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였고, 추가된 스마트폰 의존도, 주관적 학업 및 건강 만족도 변수 모두 0.001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성인이나 노인 우울증의 주요 영향요인인 건강만족도가 본 연구의 대상인 청소년에서도 유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스마트폰 의존도와 학업 만족도가 높은 경우 우울지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Table 2> Results of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Variables	Model 1			Model 2			VIF
	S.E	β	t(p)	S.E	β	t(p)	
Constant	0.1	-	-	0.11	-	-	-
Sex	0.02	-0.19	-9.02(0.000)	0.02	-0.09	-5.37(0.000)	1.05
Relation of Parents	0.02	-0.22	-10.24(0.000)	0.02	-0.11	-6.51(0.000)	1.16
Friendship	0.03	-0.27	-12.49(0.000)	0.03	-0.14	-7.83(0.000)	1.18
Time with friends	0.0	0.02	0.73	0.0	-0.03	-1.99(0.047)	1.05
Usage Smartphone				0.01	0.11	6.55(0.000)	1.17
School record				0.01	0.9	5.76(0.000)	1.04
Health condition				0.02	-0.55	-31.49(0.000)	1.19
Adjusted R ²		0.19			0.51		
F(p)		114.38(0.000)			290.05(0.000)		

S.E: Standard Error

3.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청소년의 우울지수 영향요인인 부모관계, 교우관계, 교우와 노는 시간, 스마트폰 사용, 학업 및 건강만족도간의 관계가 자아탄력성으로 인하여 조절되는지 분석하였다. 조절효과 분석을 위해 각 변수별로 세 가지 모형으로 구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R^2 의 변동분을 이용하여 조절효과를 측정하였다. 즉 첫 번째 모형은 각 변수를 독립변수로 사용하였고, 두 번째 모형에서는 자아탄력성을 추가하였으며, 세 번째 모형은 변수와 자아탄력성간의 상호작용효과를 추가하여 구성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부모관계에서는 R^2 의 값이

줄어들고 있어 자아탄력성이 음의 상호작용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교우관계에서도 R^2 의 값이 0.111에서 0.01로 작아지고 있어 음의 상호작용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자아탄력성과 부모 및 교우와의 관계요인이 청소년의 우울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우와 노는 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스마트폰 사용의 경우에도 상호작용항의 추가로 인한 R^2 의 변화가 없어 조절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학업만족도와 건강만족도에서는 R^2 의 값이 줄어들고 있어 자아탄력성이 음의 상호작용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3> Moderate effect of ego-resiliency

Variables	Model	R^2	Adj. R^2	Variances			D.W
				R^2	F	Sig. F	
Relation of Parents	1	.097	.096	.097	207.425	0.000	1.801
	2	.129	.128	.032	71.534	0.000	
	3	.139	.138	.01	22.262	0.000	
Friendship	1	.111	.111	.111	242.863	0.000	1.810
	2	.13	.129	.019	41.186	0.000	
	3	.14	.139	.01	23.416	0.000	
Time with friends	1	.000	.000	.000	.229	0.632	1.789
	2	.073	.072	.073	151.537	0.000	
	3	.074	.073	.001	2.577	0.109	
Usage Smartphone	1	.106	.105	.106	228.889	0.000	1.957
	2	.16	.159	.054	125.282	0.000	
	3	.16	.159	.000	0.003	0.957	
School record	1	.044	.044	.044	90.081	0.000	1.799
	2	.106	.105	.062	133.561	0.000	
	3	.107	.106	.001	1.604	0.205	
Health condition	1	.097	.438	.097	1511.758	0.000	1.000
	2	.129	.474	.032	132.121	0.000	
	3	.139	.476	.01	7.61	0.006	

Dependent variable : Depression

IV. 논의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4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청소년의 부모 및 교우와의 관계요인 및 개인적 요인이 우울지수에 영향 주는 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성별, 부모 관계, 교우관계, 학업만족도 및 건강만족도, 스마트폰 의존도에 의해 청소년의 우울지수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먼저 성별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우울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우울함을 더 느끼는 것을 의미하는데 청소년기 우울과 인지적 왜곡의 관계를 성별 차이로 분석한 선행연구(Calvete 등, 2005)와 유사한 결과로 여학생의 2차 성징 및 사춘기가 더 빨리 찾아오고 감정적으로 남학생보다 예민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관계 요인에서는 부모관계는 우울지수에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긍정적 양육태도에 해당하는 부모의 애정이 높을수록 우울함이 낮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Choi & Shin, 2014)와 결과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부모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학생일수록 애정결핍과 같은 우울감의 원인을 감소시켜 덜 우울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교우관계는 우울지수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우관계가 활발하고 좋은 사람이 비교적 우울함과 외로움을 덜 탄다는 기존 연구(Vernberg 등, 1992)과 궤를 같이한다. 또한 부모와의 관계의 계수 -0.11 보다 교우관계의 계수가 -0.14 로 나타나 청소년기에는 교우와의 관계요인이 부모관계보다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또래집단 내에서의 활동이 심리적,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기에 우울감을 낮출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주관적으로 자신의 학업에 만족하는 학생들도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정신적 안정에 기인하여

우울지수가 낮게 나온 것을 볼 수 있고 이 결과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Jung & Lee, 2012). 건강만족도의 경우 건강하지 않다고 느끼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더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존에 우울관련 연구와 동일하며(Katon, 2003), 이는 미국 CDC의 만성질환이 정신건강 위험요인이라는 연구 결과 및 Jeon과 Lee(2015)의 만성질환만 있는 경우보다 우울과 만성질환 동반양상이 있는 경우가 외래진료횟수 및 입원율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신체적 질환이 정신적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스마트폰 의존지수가 높을수록 우울함이 더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스마트폰 중독이 청소년의 우울과 불안감에 영향을 준다는 기존 연구(Cheong, 2013)와 같은 결과이다.

자아탄력성이 부모 및 교우관계 등 대인관계요인으로 인한 우울증을 조절하는 것을 나타냈는데 이는 자아탄력성이 청소년의 우울을 줄이고 과잉행동 등의 문제행동을 낮추며 부모의 애정표현 등으로 인한 관계와 우울증 표출에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준다는 기존 연구(Block & Kremen, 1996; Lee & Chae, 2014)를 지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아탄력성은 개인이 속한 다양한 환경변화나 스트레스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을 설명해주는 주요 변수이므로 특히 정서적, 인지적으로 민감하고 자신에 대한 통제가 서툰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을 파악하여 생활지도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V.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우울증 영향요인으로 대인관계 요인과 개인의 건강 및 청소년의 학업 만족도 등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특

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우울증, 그 중에서도 성장 과정에 있는 고등학생의 우울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한 아동청소년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함에 의해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청소년도 성년과 유사하게 건강만족도가 우울증 결정에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남에 의해 청소년의 우울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체육활동 및 여가활동 촉진을 통해 건강을 증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청소년기에는 부모와의 관계보다 교우 관계가 중요하다는 결과를 제시함에 따라 청소년 시기에 교우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육체적 성장과 함께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청소년시기에 자아탄력성으로 인한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는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을 이용한 조절효과분석에 포함된 변수 중에서 어떠한 변수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 제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1년이라는 정적인 횡단자료만을 사용하였기에 시간적인 인과 관계를 추론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데이터를 종단적으로 분석하여 시간의 흐름으로 분석하는 추세 연구를 제안한다.

참고문헌

- Block J, Kremen AM.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96;70(2):349-361.
- Calvete E, Estévez A, López de Arroyabe E, Ruiz P. The Schema Questionnaire-Short form: Structure and relationship with automatic thoughts and symptoms of affective disorders.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2005;21:91-100.
- Cheong HJ. (The) impacts of depression and anxiety on youth smartphone addiction. Myeongji Univ. 2014.
- Choi HJ, Shin HJ. The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and social withdrawal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ing attitudes and adolescent victimization. *Studies on Korean Youth* 2016;27(2):297-323.
- Choi JY, Lee YS. The Influences of Covert Narcissism, Anger Expression Styles and Empathic Ability on Interpersonal Problems of Middle School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Rehabilitation Psychology* 2014;21(1):77-95.
- Glaser K. Masked depression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1967;21:565-5.
- Hong JI, Han GB. An Impact of Adolescent Parental Attachment on Interpersonal Problems: Mediating Roles of Internalized Shame and Rejection Sensitivity. *Studies on Korean Youth* 2015;22(5):367-389.
- Jeon JH, Lee NH. Depression, Its Concurrent Chronic Illnesses, and Related Health Service Use in the Korea Welfare Panel Data.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5; 75-84.
- Jo JA. The Effects of Parents, Peers and Teachers upon Changes in Mental Health on the Part of Adolescents : A Focused on Depression and Anxiety. *Studies on Korean Youth* 2009; 20(3):167-192.
- Jung IJ, Lee JE. The Pathways from Child Abuse and School Bullying to Depression and Aggression in Adolescence : With a Special

- Focus on Differences in Gender. *Studies on Korean Youth* 2012;23(2):167-193.
11. Jung ML. (The) effects of anger and rumination about of stressful life event on interpersonal problem, Gemyong Univ. 2015.
 12. Katon. Clinical and Health Services Relationships between Major Depression, Depressive Symptoms, and General Medical illness. *BIOL PSYCHIATRY* 2003;54:216-226.
 13. Ki KD.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lass and criminal behavior : with a sprcial emphasis on the mediating effects of child rearing and self-control. SungkuenKwan Univ. 2001.
 14. Kim JH. The Mediating Effects of Children's Ego-Resilience between Parent-Child Communication Styles Perceived by Children and Children's Behavior Problems, SookMyeong Univ. 2012.
 15. Kim KI, Kim JH, Won HT, Simple mental aggression test. Seoul. 1984.
 16. Lee HJ, Chae YJ.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nd gender differences in youth activity involvement, social-emotional aspects, and life goals. *Studies on Korean Youth* 2014;25(2): 173-207.
 17. McGee R, Williams S, Share DL, Anderson, J., & Silva, P. A. The relationship between specific reading retardation, general reading backwardness and behavioral problems in a large sample of Dunedin boys: A longitudinal study from five to eleven year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1986;27:597-610.
 18. Ministry Gender Equality and Family, Adolescent Interview Contents and Situation. 2016.
 19.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hildren and Youth White Paper 2009.
 20. Park ES. Moderating Effects of Ego-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al Attitudes and Problem Behaviors among Preschoolers, Gemyeong Univ. 2013.
 21.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2013.
 22. Park JY, Jung IJ, The Effects of High School Students' Academic Problems on Suicidal Ideation -Focusing on the Mediatlional Effects of Individual-Level Risk and Protective Factor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2010; 69-97.
 23. Rathi N, Rastogi R. Meaning in lif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pre-adolescents and adolescents. *Journal of the Indian Academy of Applied Psychology* 2007;33:31-8.
 24. Vernberg EM, Abwender DA, Ewell KK, Beery SH. Social anxiety and peer relationships in early adolescence: a prospective analysi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992; 21(2):189-196.
 25. Yun HY, Gang JH, A Study of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 on Interpersonal Problems among College Students :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internalized shame. *Journal of Korean Psychology* 2015;27(2):405-423.